

# 지식재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주요 사례

## 1.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고민해결

공제상품 출시 전



- 특허분쟁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, 해당 기업이 담보대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금마련·특허분쟁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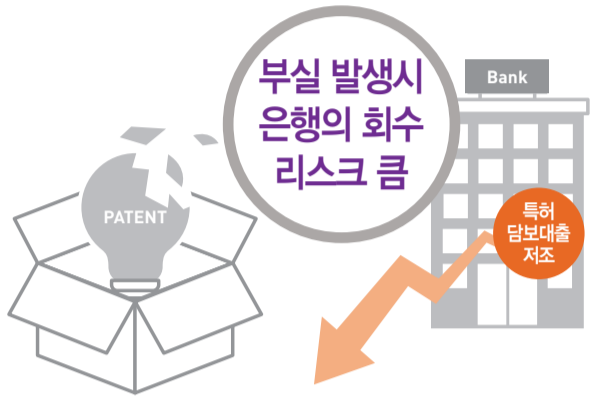
공제상품 출시 후



- 공제상품 가입 시 1년 후부터 대출 가능
  - 부금 이자율 2.0%, 대출금리 2.0%
  - 지식재산 대출 가능 최고액 25억원 (납입부금 5억원 적용 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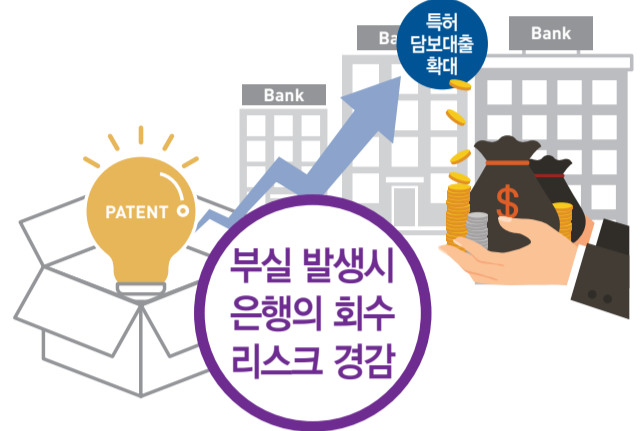
## 2. 사장님! 이제 특허기술로 대출 받으세요

개선 전



- 특허담보대출 이후, 부실 발생시 담보물인 특허 매각이 어려워 은행의 회수 리스크가 큼
- 민간은행의 특허담보대출 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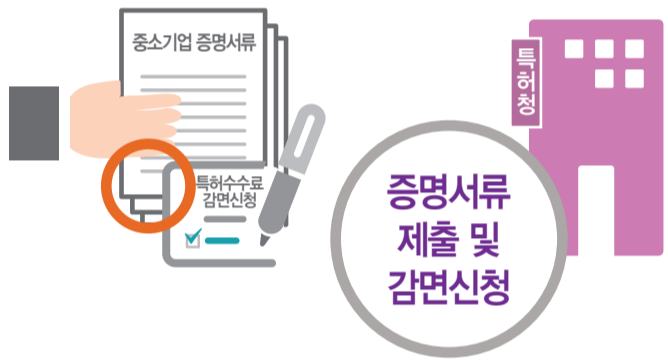
개선 후



- 부실 발생시 정부·은행의 출연금으로 담보물인 특허를 매입함으로써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
- 민간은행의 특허담보대출 확대

## 3. 중소기업 특허수수료! 감면신청 안해도, 증명서류 없어도 감면해줘요

개선 전



- 수수료를 납부하는 모든 단계에서 감면신청하고 중소기업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특허수수료 감면혜택 제공

개선 후



- 중소기업이면 특허청이 알아서 감면혜택 제공
  - 출원 등 모든 단계에서 감면신청 NO! 증명서류 발급 NO! 증명서류 제출 NO!

## 4.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및 우선심사 확대

개선 전



- 4차 산업혁명 관련 7개 기술 분야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우선심사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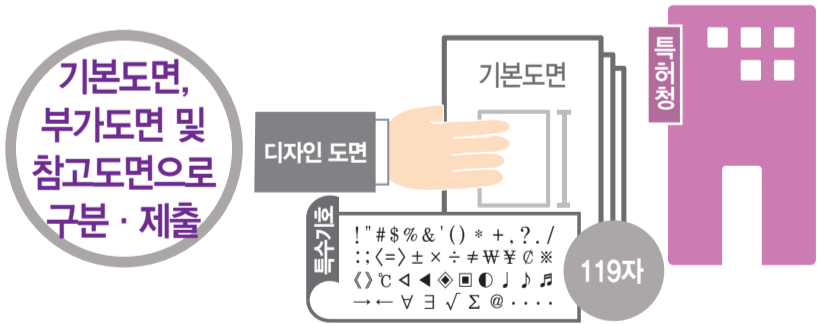
개선 후



- 4차 산업혁명 관련 9개 기술 분야를 新특허분류체계에 추가하고, 우선심사 대상을 16개 분야로 확대

## 5. 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

개선 전



- 디자인 도면은 기본도면, 부가도면 및 참고도면으로 구분·제출
- 특수기호 글자체 119자를 모두 도시하여 출원하도록 규정

개선 후



- 부가도면을 기본도면에 통합시켜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면의 종류 간소화
- 특수기호 글자체의 필수 글자개수를 16개로 완화하고 원하는 경우 추가 지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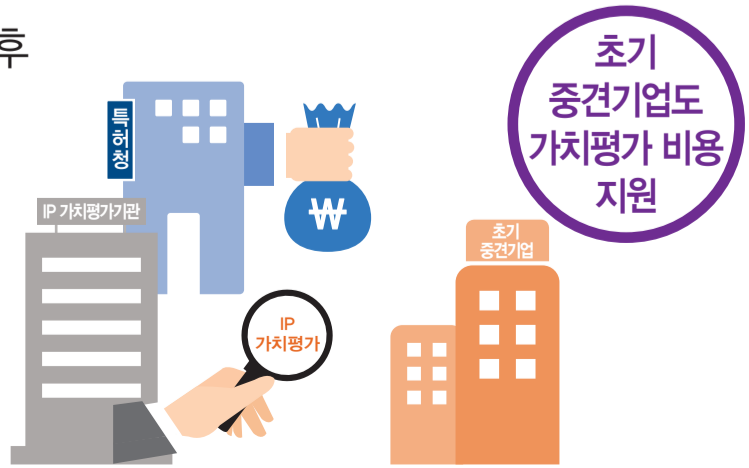
## 6.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

개선 전



-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원

개선 후



- 개인,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초기 중견기업까지 가치평가 지원 대상에 포함